

이번 주 시장을 읽는 하나의 문장

D램 81% 급증·AI 인프라 수조 달러 베팅 속, 고용 서프라이즈 한 방에 나스닥 4% 무너진 한 주

삼성전자의 1분기 D램 매출 81% 급증과 브로드컴의 208% AI 반도체 성장 예고, DRAM 계약가 63% 추가 급등이 맞물리며 메모리·AI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알파벳은 1,900억 달러 CapEx 확대와 800억 달러 증자로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2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자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그간 AI 랠리를 이끌던 반도체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이 집중됐다.

Weekly Essay

숫자는 완벽했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나

삼성전자의 1분기 D램 매출 81% 급증과 브로드컴의 208% AI 반도체 성장 예고, DRAM 계약가 63% 추가 급등이 맞물리며 메모리·AI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알파벳은 1,900억 달러 CapEx 확대와 800억 달러 증자로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2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자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그간 AI 랠리를 이끌던 반도체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이 집중됐다.

이번 주 리포트는 데일리 리포트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날 반복된 주제를 골라, 왜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했는지,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도 산업, 금리와 유가 같은 매크로 변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서로 연결되며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리포트는 단순 뉴스 목록이 아니라, 다음 주 투자 판단에 바로 연결되는 해설지에 가깝게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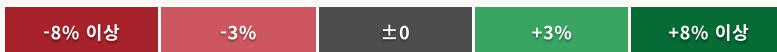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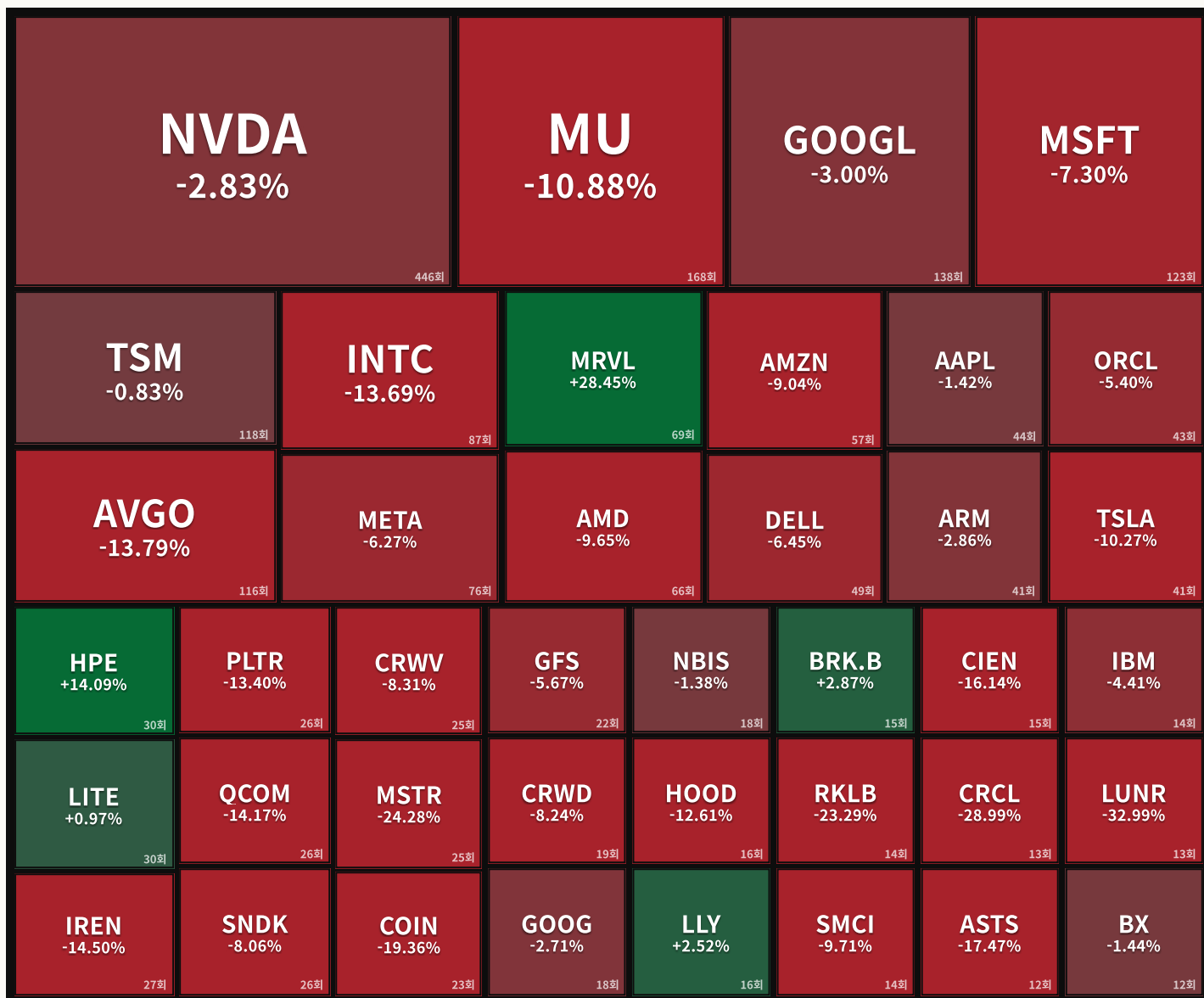
- 01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 02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 03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던스
- 04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 05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던스 어닝 서프라이즈

Mention Map

이번 주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40

한 주 동안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상위 40개 기업입니다. 위쪽일수록 언급 빈도가 높고, 칸 크기는 언급 빈도(제공된 스케일), 색상은 주간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466 주간 언급 기업	40 이 페이지 표시	124 주간 상승	302 주간 하락
------------------------	-----------------------	---------------------	---------------------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Mover Map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20

상단은 주간 상승률 상위 20개, 하단은 주간 하락률 상위 20개 기업입니다. 칸 크기는 변동률 절대값에 비례합니다.

466 주간 언급 기업	40 이 페이지 표시	124 주간 상승	302 주간 하락
------------------------	-----------------------	---------------------	---------------------

▲ 상승률 상위 20

QMCO +30.80%	MRVL +28.45%	TMHC +22.23%	FLNC +21.18%		
ROLR +15.36%	TNDM +12.14%	OSCR +10.33%	FJET +9.67%	TXG +9.60%	
HUM +14.59%	AAOI +11.76%	COO +10.08%	RLYB +8.94%	CING +8.85%	
HPE +14.09%	MDT +10.59%	VSH +9.97%	REPL +8.85%	MGM +8.83%	DE +7.70%

▼ 하락률 상위 20

FULC -46.90%	KORU -44.42%	PL -36.86%	CELC -33.49%		
LUNR -32.99%	BKSY -28.34%	IMRX -26.38%	MLYS -24.55%	MSTR -24.28%	
SPCE -29.71%	GPRO -27.37%	SATL -25.21%	ABVX -23.56%	RZLV -22.48%	
CRCL -28.99%	ARQQ -26.56%	RDW -24.80%	RKLB -23.29%	LCID -21.93%	ASST -21.31%

-8% 이상	-3%	±0	+3%	+8% 이상
--------	-----	----	-----	--------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Daily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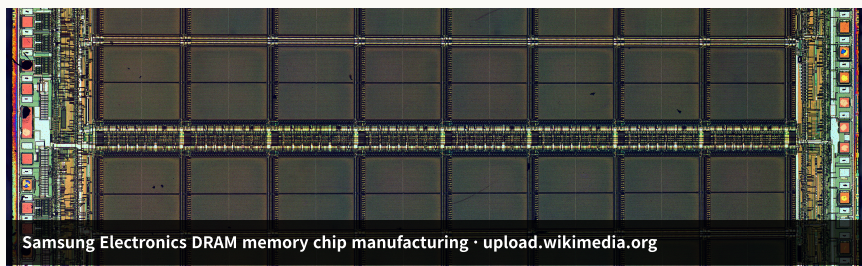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1분기 D램 매출이 81% 급증하며 삼성전자가 시장 선두를 탈환하는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AI 하드웨어·반도체 주도의 기술주 강세로 미국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위협이 지정학 리스크로 급부상하며 에너지 시장 불안과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트로픽이 SEC에 IPO

01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Samsung Electronics DRAM memory chip manufacturing · upload.wikimedia.org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5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2

소프트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엔트로픽, SEC에 IPO용 S-1 비공개 제출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3

에너지 ·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변수 · 중립

이란, 美 협상 중단·호르무즈 완전 봉쇄 위협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어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6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유가가 다시 튀는지, 운송·항공·소비재처럼 비용 민감 업종이 함께 흔들리는지 봐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 엔트로픽, SEC에 IPO용 S-1 비공개 제출 / 이란, 美 협상 중단·호르무즈 완전 봉쇄 위협」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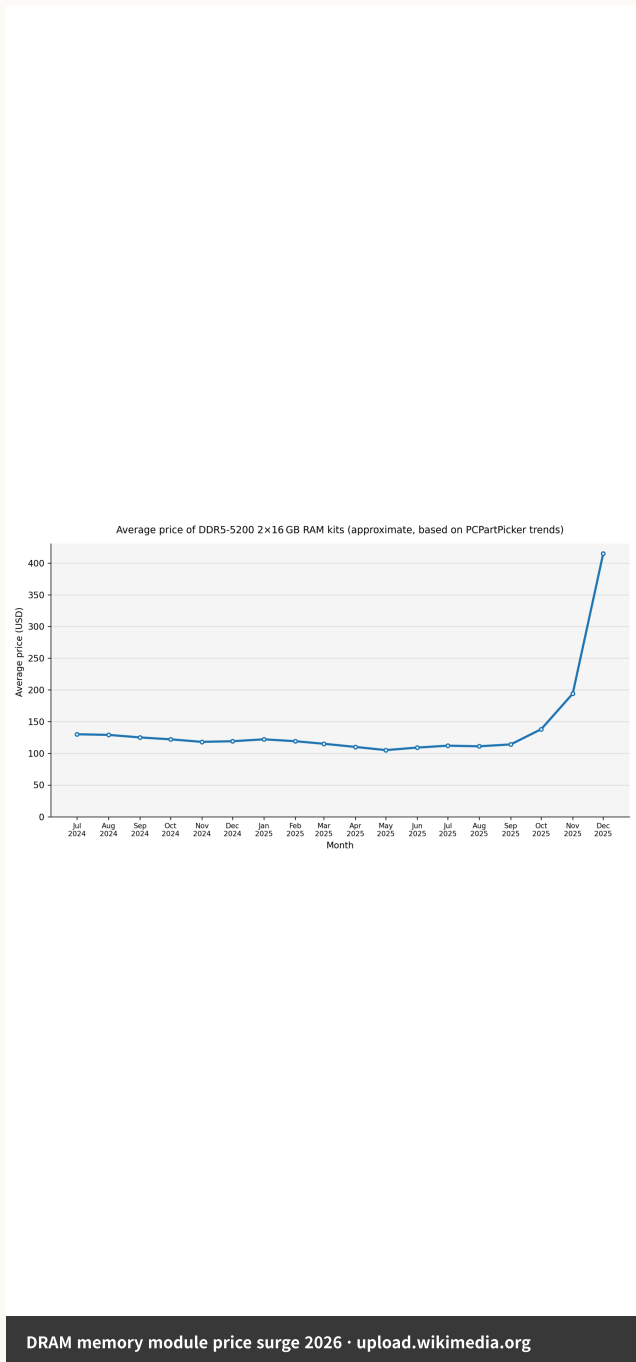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DRAM 2분기 계약가가 최대 63% 추가 급등하며 두 분기 연속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확인됐고, 알파벳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800억달러 증자를 추진하며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달러 참여를 확정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제 전면 시행으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연방 배심원단의 앤드루 레프트 주가조작 유죄 판결은 액티



04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3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5

알파벳, AI 인프라 위해 800억달러 증자 추진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6

구글 800억달러 AI인프라 자금조달, 버크셔 100억 참여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걸로로는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 알파벳, AI 인프라 위해 800억달러 증자 추진 / 구글 800억달러 AI인프라 자금조달, 버크셔 100억 참여」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장 큰 미국 주식 뉴스 | 플로카 투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Daily Three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3분기 가이드스에서 전년비 208% 성장을 예고하며 맞춤형 ASIC 수요 가속을 확인했고, S&P 500은 7,6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권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가 빅4의 AI CAPEX 전망치를 5.3조 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과 도이체방크의 시장 고평가 경고가 동시에 부각되며 강세 국면 속 지정학적

07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7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8

소프트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MS, Build 2026서 자체모델·AI에이전트 전면 공개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9

하드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골드만, 빅4 AI CAPEX 5.3조달러로 상향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 MS, Build 2026서 자체모델·AI에이전트 전면 공개 / 골드만, 빅4 AI CAPEX 5.3조달러로 상향」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던스

브로드컴이 FY27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로 100억달러를 제시하며 커스텀 AI 칩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했으나 당일 주가는 12% 급락해 AI 실적 눈높이 부담을 드러냈다. 알파벳은 올해 캐팹스를 1900억달러로 확대하며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지속됨을 시사했고, 중동 긴장·BOJ·연준의 매파 발언이 맞물리며 다우지수 사상 최고와 방어·금융주 순환매

10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던스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3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소프트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알파벳, 올해 CapEx 1900억달러로 AI 베팅 확대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2

금융 · 할인율의 압박 · 중립

중동 긴장에 미 증시 하락...유가 반등

금리 뉴스는 성장주의 실적 기대를 직접 훼손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금융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다음 주에는 장기금리가 안정되는지, 성장주 반등이 금리 하락 없이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던스 / 알파벳, 올해 CapEx 1900억달러로 AI 베팅 확대 / 중동 긴장에 미 증시 하락...유가 반등」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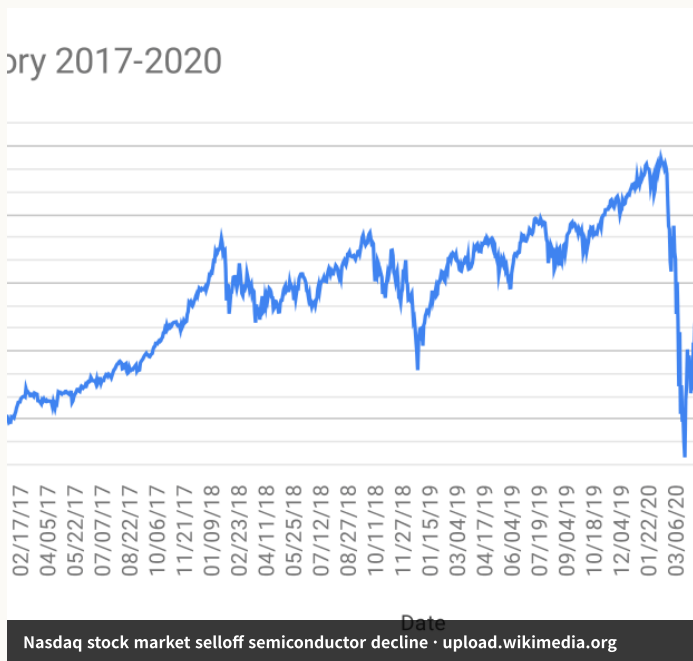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5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17.2만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반도체주가 동반 투매됐다. AI 밸리를 주도하던 반도체·기술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 압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폭스콘의 5월 매출 39.6% 상승 등 AI 인프라 수요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3 · 반도체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2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4 · 소프트웨어

빅테크 AI 인프라·모델 경쟁 가속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6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5 · 하드웨어

폭스콘 5월 매출 39.6% ↑ …AI서버 호조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Weekly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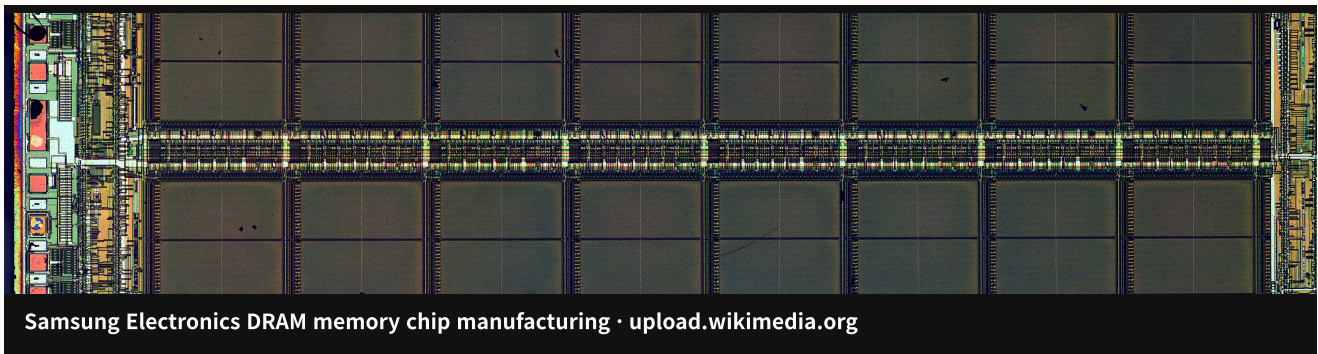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 빅테크 AI 인프라·모델 경쟁 가속 / 폭스콘 5월 매출 39.6% ↑ …AI서버 호조」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01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이번 주 시장이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52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1분기 D램 매출이 81% 급증하며 삼성전자가 시장 선두를 탈환하는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AI 하드웨어·반도체 주도의 기술주 강세로 미국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1 · 월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 1분기 D램 매출이 81% 급증하며 삼성전자가 시장 선두를 탈환하는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AI 하드웨어·반도체 주도의 기술주 강세로 미국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위협이 지정학 리스크로 급부상하며...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가격은 이미 얼마나 반영했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공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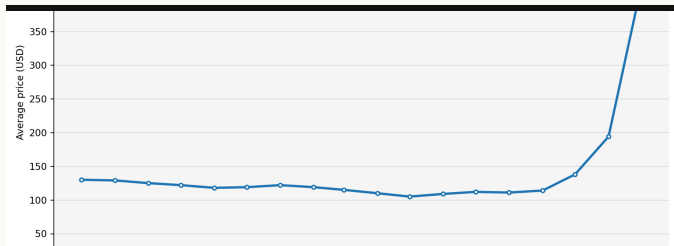
가격 확인

- 호재 직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거래량이 줄면 선반영 부담을 의심해야 한다.
-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02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은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32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DRAM memory module price surge 2026 · upload.wikimedia.org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DRAM 2분기 계약가가 최대 63% 추가 급등하며 두 분기 연속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확인됐고, 알파벳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800억달러 증자를 추진하며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달러 참여를 확정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2 · 화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 DRAM 2분기 계약가가 최대 63% 추가 급등하며 두 분기 연속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확인됐고, 알파벳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800억달러 증자를 추진하며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달러 참여를 확정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제 전면 시행으로 에너지 공...

DRAM 2분기 계약가 최대 63% 추가 급등

다음 주 가능한 세 가지 경로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공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시나리오

- 강세 시나리오:** 후속 가이드نس와 공급망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 중립 시나리오:** 뉴스는 좋지만 주가는 박스권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다.
- 약세 시나리오:** 금리나 마진 부담이 커지며 밸류에이션이 먼저 눌린다.

03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드언스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드언스」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드언스」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13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드언스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브로드컴이 FY27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언스로 100억달러를 제시하며 커스텀 AI 칩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했으나 당일 주가는 12% 급락해 AI 실적 눈높이 부담을 드러냈다. 알파벳은 올해 캐פק스를 1900억달러로 확대하...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4 · 목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드언스 — 브로드컴이 FY27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언스로 100억달러를 제시하며 커스텀 AI 칩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했으나 당일 주가는 12% 급락해 AI 실적 눈높이 부담을 드러냈다. 알파벳은 올해 캐פק스를 1900억달러로 확대하며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지속됨을 시사했...

읽는 방식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드언스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 호재가 아니라 다음 주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관찰 대상이다.

브로드컴, AI반도체 폭발 성장에 FY27 100억달러 가이던스

목표가는 왜 움직였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데이터센터 투자, HBM, 서버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던스 상향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 점검

- 1 목표가 변화가 매출 추정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단순 멀티플 재조정이면 지속성은 가격 반응에 달려 있다.
- 3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04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12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불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5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17.2만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반도체주가 동반 투매됐다. AI 랠리를 주도하던 반도체·기술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 압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폭...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5 · 금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 5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17.2만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반도체주가 동반 투매됐다. AI 랠리를 주도하던 반도체·기술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 압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폭스콘의 5월 매출 39.6% 상승 등 AI 인...

나스닥 4% 폭락, 반도체주 투매로 최악의 하루

실행력이 확인돼야 하는 지점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공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실행 확인

- 실제 공급, 고객 승인, 양산 일정이 뉴스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 수율과 마진 코멘트가 함께 좋아져야 주간 흐름이 이어진다.
-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05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 주 시장이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77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드스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3분기 가이드스에서 전년비 208% 성장을 예고하며 맞춤형 ASIC 수요 가속을 확인했고, S&P 500은 7,6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권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가 빅4의 AI CAPEX 전...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6-03 · 수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3분기 가이드스에서 전년비 208% 성장을 예고하며 맞춤형 ASIC 수요 가속을 확인했고, S&P 500은 7,6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권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가 빅4의 AI CAPEX 전망치를 5.3조 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이란의...

브로드컴 AI 반도체 컨센 상회, 3분기 가이드스 어닝 서프라이즈

공급망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데이터센터 투자, HBM, 서버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스 상향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공급망 확인

- AI 서버 투자 확대가 HBM과 패키징 병목을 더 자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대형주뿐 아니라 후발 공급망까지 온기가 퍼지는지가 중요하다.
-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Closing Essay

D램 81% 급증·AI 인프라 수조 달러 베팅 속, 고용 서프라이즈 한 방에 나스닥 4% 무너진 한 주

삼성전자의 1분기 D램 매출 81% 급증과 브로드컴의 208% AI 반도체 성장 예고, DRAM 계약가 63% 추가 급등이 맞물리며 메모리·AI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시화됐고, 알파벳은 1,900억 달러 CapEx 확대와 800억 달러 증자로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5월 비농업 고용이 17만2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하자 금리 급등 우려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 폭락하며 그간 AI 랠리를 이끌던 반도체주에 단기 과열 되돌림이 집중됐다.

가장 반복된 주제 · 1Q26 D램 매출 81% 급증, 삼성 1위 여러 날짜의 데일리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슈입니다. 단기 뉴스보다 주간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산업 · 반도체 기사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 한 주 동안 투자자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체크 · 실적, 가이드스, 금리·유가 변수 이번 주에 형성된 기대가 다음 주 가격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부담 요인이 다시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